광주시, 'G-페스타 광주' 봄시즌 활짝

'광주방문의 해' 맞아 사계절 확대 운영… 5·6월 봄축제 첫선

'오월광주'·'열정×익사이팅' 테마로 11개 이벤트 25일간 펼쳐

지난해 가을 첫선을 보인 축제통합 브랜드 'G-페스타 광주'가 올해는 계절의 여왕인 봄부터 운영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G-페스타 광주'를 5월부터 6월까지 2개의 테마로 구성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와 각각의 축제 개최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홍보마케팅, 콘텐츠 연계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관광객 증가, 관광이미지 제고 등 호평을 받은 'G-페스타 광주'는 올해에도 도시 전역을 하나의 축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광주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페스타 광주' 봄시즌은 모두 11개의 축제·행사로 구성되고 '오월광주' 테마와 '열정×익사이팅' 테마로 구분해 운영한다. 특히 '오월광주'는 제45주년 오월광주 민주대축제와 연계해 풍성하고 다양한 광주를 선보일 계획이다.

■테마1-오월광주를 말하다

첫 번째 테마인 '오월광주'는 5월15일부터 6월1일까지 6개의 축제·행사로 구성된다.

먼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은 '평화와 연대-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는 민주평화대행진과 시민난장 등 전야행사와 오월강연대회,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광주생일인 '시민의 날'은 24일 60회를 맞아 시청 일원에서 기념식, 싱투게더, 워터슬라이딩, 정책평가박람회 등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민주·인권·평화를 말한다'를 주제로 AI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토론 및 토크콘서트인 '광주국제인문위크'가 28~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무등울림축제'는 24~25일 무등산 전통문화관에서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주제로 전통 문화예술공연, 문화장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열리는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는 동구 증심사지구에서 초록의 싱그러운 자연과 인문·예술이 더해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테마2-익사이팅한 광주를 맛보다

두 번째 테마인 '열정×익사이팅'은 5월29일부터 6월8일까지 5개의 축제·행사로 지역에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호남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 전시회인 '광주식품대전'과 커피 등 차와 디저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티앤카페쇼', 전 세계 다양한 주류 시음 및 구매 등 직접 마셔보고 즐기는 '광주주류관광페스타' 총 3개의 대규모 박람회가 29일부터 6월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스트리트댄스 흥행몰이 1번지 '광주스트릿컬처페스타'는 6월5일부터 8일까지 전문댄서들의 경연대회인 '배틀라인업'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스트릿컬처에 대한 전시, 토크, 뮤직쇼 등을 통해 서로의 취향과 문화를 자유롭게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렛츠플로피3.0'는 6~7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함께 열려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열정×익사이팅'이 열리는 기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플리마켓, 맥주축제, 길거리농구를 즐길 수 있는 광장문화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시민과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제·행사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오월 스탬프투어'도 운영해 참여한 분들께 광주관광기념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스탬프투어 및 봄시즌 축제·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G-페스타 광주 공식 홈페이지(https://g-fes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G-페스타 광주' 브랜드 확산을 위해 참여기관과 함께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 'G-페스타 광주'를 집중 홍보하고, 행사장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안내해 관광객이 다시 광주를 찾아오게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계절별 주요 축제와 시민 문화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제 브랜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올해 G-페스타 광주는 봄 시즌부터 시작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도심 곳곳에서 광주의 감성과 매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2025 광주 방문의 해와도 긴밀히 연계해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문화관광 마케팅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국보순회전 특별전시 20일 개막

국보급 분청사기의 화려한 외출, 개막식 당일 풍성한 볼거리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은 '가락진 멋과 싱싱한 아름다움, 분청사기'라는 주제로 '국보순회전, 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 특별전시를 오는 20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보순회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고,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국보급 분청사기 가운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귀중한 작품들을 선보여,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80일간 진행되며, 보물 '분청사기 상감인화 연꽃 넝쿨무늬 병'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분청사기 등 총 8점의 작품이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개막식은 전시 시작일인 20일 오후 2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되며, 개막식 이후에는 김산옥, 임재현의 퓨전 국악 공연이 문화행사로 펼쳐질 예정이다.

가락진 멋과 싱싱한 아름다움, 분청사기

군 관계자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이번 국보순회전이 고흥군민을 물론 인근 지역민들에게도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 3대 도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분청사기의 멋과 아름다움을 많은 분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제22회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

국가무형유산 영광 법성포단오제에서 옛 풍요를 재현하다

법성포단오제 보존회(회장 한유경)에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실력 있는 국악인들의 최고 등용문인 제22회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선 중기부터 시작해 500여 년 동안 영광 법성포 일대에서 펼쳐졌던 국가무형유산인 법성포단오제는 난장(亂場)과 함께 산신제, 용왕제, 선유놀이, 전통놀이, 국악경연대회 등 유흥과 놀이, 공연예술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 개념의 축제로 특히 국악경연대회는 전국의 많은 예술인들이 모여 경연을 펼치는 전국 최고의 행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2회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오래전 풍요로웠던 법성포에 전국의 예술인이 모여서 경쟁하던 풍류 재현과 전통을 계승하고 국악의 저변 확대와 실력 있는 인재 발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의 경연 종목은 기악, 판소리, 무용 세 종목이며 학생부·신인부·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시상 훈격은 종합대상으로 국무총리상, 종합최우수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일반부 및 신인부 부문대상은 전라남도지사상, 학생부 부문대상은 전라남도교육감상, 부문별 최우수상은 영광군수상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그날의 기억전' 사진으로 다시 만나는 오월

19일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서 사진전·포토존 운영

전라남도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월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전남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기념 사진전과 포토존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에선 전남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서 주관한 '5·18민주화운동 전국사진공모전'과 '청소년 미술공모대회-희망새의 지저귐' 당선작 50여 점을 선보인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정신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참혹했던 당시 상황과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다.

사진 전시와 함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5·18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 어두운 배경 속 무수한 노란 점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민주화의 불빛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을 형상화해 도청을 찾는 방문객이 5·18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전남도청 김영랑문 앞 광장의 옛 전남도청 현판 앞에서 제45주년 전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17일엔 목포역 광장에서 기념행사 일환으로 남도 오월 문화제가 펼쳐진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전시와 행사를 통해 도민 모두가 5·18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정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